

節婦岩の由來

龍水里

96년
정무년
이월
이월
이월
이월

薦	천하명선	茲	이차	象	모름중	貞	고음정
種	제거불론	值	값치	庶	뜻서	節	파미절
是	이시	李	합제지	仰	올려볼함	卓	뛰어올라
宜	바람의	春	봄은	之	잡지	異	다름이

현부제 지방

貞節夫人高氏
 葉武康士諱府君
 神位

茲值季春
 萬禋是宜
 仰祈
 神鑒
 是禱

貞節卓異
 衆庶仰之
 其德
 昭著
 永膺
 福祿
 萬年
 之慶

傳說化五
訛傳되어 가는 史實

外
한
가
한
한
한

鄧輝若

烈女高氏夫人의 一生

節婦岩記錄의 整理

地方文化祭記念物 제9호 節婦岩

濟州道北濟州郡翰京面龍水里 浦口의東岸
을향한 상록수 숲에 싸여있는 바위에 옛글씨
(隸書體)로 節婦岩이라 적혀있다

流行歌謡의 題目까지된 이 節婦岩의 傳説
은 대를 버려갔다가 돌아 오지 않은 남편 뒤를
따랐고 그러자 남편의 魂身이 바닷가에 올라와
合葬으로 저승서 받았다는 애절한 高氏夫人
의 이야기일 것이다 130 餘年 前에 지내지
않은 오늘날이 벌써 史實으로서의 고증은 버려지고
흥미본위의 傳説로 왜곡되어져 버리는 일은
뒷날이 크게 그릇 될러지는 소자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어서 찾아볼수있는 文獻을 비롯하여 이미
사라져가고있는 口傳까지를 모아서 정리해줄
必要가 있는 것이다

康士喆과 節婦 高氏와의 천생연분

남편 康士喆과 그 간수이인 節婦 高氏의 집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而叔 浦營內 下營里에 살던 康聖一과 河津里의
高應宗과는 祖上에 부녀 오가는 집안 여의었다

서로 집안이 넉넉지 못하여 康은 大靜고을 現 翰京
面 進水里로 高는 樞營로 명의군에 새로운 밭을 개
간하기 위하여 옮겨 살았다 康은 男妹를 낳아

작을 지어주고 손자까지 보았으나 아들과 손자가 모두
病死한 뒤 늦으막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 高氏의 남편이 될 康士喆 일 것이다 士喆이 처
자라가면서 父母를 여이고 (아들 손자의 病死로 심히 병으로

죽었다함) 천여 孤兒가 되자 龍水里(고리浦)에 出稼
할 수단을 찾아 樞大 營京保에게 돈을 부쳐 살게 되
었다 高氏는 아들 하나를 두었고 늦으막에 딸을 얻었

으니 이 딸아이가 후에 (節女) 高氏 일 것이다

士喆은 樞大의 밑을 서들면서 마다에서 고기 잡이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누님은 동생 士喆을

썩지 않게 하고 여렸으나 가난한 孤兒에게 딸을 주
겠다는 사람이 없어 士喆의 아버지 친구인 高應宗을

죽음으로 명하는으로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께 본향 할
후사가 끊이지 되었으니 딸들을 주심하고 하소연
그해 윤3부(1852) 겨울 18세인 딸을 신랑에게
出嫁시키려한것이다 천성열분으로 맺어질 아무것도
夫婦는 비록 가난은 하였지만 앞날의 실계를 통하여
고가장이 남작집을 팔아 바닷길과 조개 매기를 요란을
모르지 부어할 나날을 보냈다 이같이 해서 바뀌어
정유년(1853) 겨울 농한기가 되자 이느러서 청양을
떠나(竹島-連敬島)으로 洞里 아흔이만 友愛錄을
떠나 한두일 連敬島와 같이 몇복매를 타고 떠났던 것이다
(떠나서서 처음 첫사리들 겨울 농한기에 竹島工品을
팔아서 되는 부업이 성 했음) 떠나꾸를 삼고 돌아오면
몇복매가 洞腹이 되집혀(龍水와 連敬島 사이는 특히
龍腹과 통하고 龍水가 맑음) 드리는 물종되고 만것이다
그년부터 廣士誥의 양아버지 高氏는 이곳마을은 輪
大韓교를 지주주지정 叔浦(읍4계)까지 바닷가를
주주해매는이 길길이 해어져서 뱃방이 부르러서 외가
남자찾다고 하며 풍으로는 길길을 삼로는 아침에는
죽음을 전례하고 다시 남편씨알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

11월 4일 趙虎銀의 시체가 떠올랐고 15일에 머리가
떨어진 시체가 다시 떠올랐다. 廣世齡과 趙連得은
나이고 키도 비슷하여 분간할 못하더니 趙의 옷을 지어
승여인이 있어 (옷을 지을 때 안장이 모자와 거머쇠를
붙여었다)는 誼告에 따라 趙의 시신을 알아내었다
이제 편방을 高氏夫人은 그날날 비통한 울음으로 지새어
가 마침내 영덕동산(靈節婦洞山)의 울루 나무에
목매어 죽어 버린 것이다 (解脫되어서도 高氏夫人이 목매었
후 울루 나무가 남이 되었으나 물자작한 漢雲경의 상임아손이
찾아 나무가 죽었거져 버려 날라죽음) 高氏夫人이 3日
葬을 지르는 날 11月 18日 아침 그날엔 廣世齡이 麗月
夫人이 목매었던 언덕에서 떠올랐던 것이다
이것을 본 마을사람들이 (曹娥가 抱屍 濱水나 曹娥
夫人이 肝江에 祭屍를 지내다 물에 뛰쳐 빠져 죽은
아비를 찾다가지고 강물에 投屍를 지 사흘만에 아비의
시신을 알고 떠올랐다는 奇蹟을 일컬음)에 경을 받들
았으므로 칭송하였고 望山峯東쪽 비탈 高山과 龍水
境界 姓氏 李泉保가 같이 合葬하였다

節婦高氏를 받들게된 慎判官이 來歷

이소식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널리 칭송의 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高氏夫人의 居住地였던 樞密院 傍의
동여사는 동이름을 烈女祠으로 고쳐서 자랑하고 있다>
大靜縣校에서 공부하고 있던 儒生 慎我結도 크게 감동
하여 高氏夫人을 敬慕하여 표창하실 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애석하게 생각하였으나 아름없는
서경으로서는 어찌 할 도리 없음을 한스러히 여기면서
오직 과거 공부에 열중하였다. 첫과거에 낙방한 날
밤 중에 소복한 靑裙夫人이 나타나 무슨 말로 하오면
할 듯하다 할아졌던 것이다. 아름히 여겨 정잠하여
解夢을 보니 죄가 없으니 저승에서 받아들이 주지
않고 아름히 물아 물려고 해도 屍體이어서 환생하지 못한
夫人이 항상 당선을 따르고 있으며 簪靴을 물려서
그대의 魂을 달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없이 죽은 夫人을 알 수가 없어
궁금해 하다가 어엿날 기록에서 烈女祠을 보고 高氏
夫人의 영격이 떠올라서 무릎을 치고 달려가

高氏夫人의 무덤앞에 제수를 벌이고 제사를 지냈던것이다
그공덕 때문인지 그다음해의 丁卯年(1467)年 秋
上京하여 용시한 漢苑帖은 무난히 扈駕하였고
돌아오는길에 風浪이 심하여 一行이 말머가 珍富에
정박하고 밤을 지내는데 다시 전에 보였던 夫人이
꿈에 나타나 첫닭이 울거든 서울의 벼를 더워 떠 나
시오 말하고 사라졌던것이다

돌리 잠을 깨니 마침 첫닭소리가 울리어 성원들을
목욕하여 제왕 먼저 제우도를 향하여 죽을물의 때 나오도록
함것이다 다른백의 시종들은 돌며도 안되었고 날로 맑지
않았으며 서울저 무어냐고 물어봐도 뒤 따랐던것이다
眞선비의 매가 山池浦口에 닿자 갑작기 쫓風이
일어 뒤따라 떠날때들은 관할로 부근에서 봉발 당하
였었다 漢苑帖은 다수금 高氏夫人의 現存한 도우심
을 잊을수가 없게되었고 高氏가 죽여졌던 나무아여
바위에 歸靜齋이라는 글은 예서체(韓書體)로 새겨
질이 꽃날에 활자함과 아들의 卷을 모지 불구어서
거기 表節碑를 세워 祭耗을 지냈던것이다

大靜郡守로遷鄉한慎判官과 高氏墓祭

慎判官의 高氏夫人에 대한 寄歸로창의 일기는
그의 30년이 지난 慎判官이 大靜郡守로 오게 되면
서 더욱 뚜렷해졌다 光武二年(1898) 6月7日 大靜郡
守慎武祐判官은 歸德高氏을 大槩量勸善錄을 짓고
스스로 먼저 돈 50兩을 내놓고 소속 관원들이
我換金을 합쳐 75兩을 龍永-高山 부마에게
37兩 5은씩 반으로 나누어주어 해마다 3月15日
에 墓祭를 지어지 하였던 것이다. 이어 부마를 여신은
돈을 더 보아서 節婦祭本錢 地利簿을 만들어
1944年 까지 墓祭를 올려오다가 墓金이 바닥나
墓祭가 끊기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龍永里青年선이 李寶星이 1946年 節婦高氏設
量勸善大勸善錄을 만들고 洞里의 어른들과 潛搜
들을 실행해 墓金 五十二百六十圓을 모여 位土田을
사들고 그날까지의 소출로 1947年 3月15日부터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薛林高氏斗來歷州封典提以開耕事項

高氏夫人斗象系

乾隆高氏 皇金公孫 中佑祖 37世孫 應宗之女
 (以上皆妻) 28世 永昇公孫 智男 39世 莫東
 30世 義福—泰雲—信得—興瑞—允周—正德—
 有良—37世 應宗(諱應秋) 38世 薛林高氏
 39世 永吉—40世 有煥 41世 聖弼(晚河漢里居住)

康士喆 家系

信州康氏入皇格祖康斗14世孫 聖一之子 (暗未用)
 入皇格祖康—2世 賴—3世 雲英—4世 善—5世 義貴—6世 有職
 7世 仁中—8世 敬男—9世 應得—10世 隨善—11世 路遠—12世 運
 13世 仁國 14世 康斗斗下考里以居住斗聖吉
 14世 聖一—子 士喆

康士喆斗姊魏象斗家系

金林李氏 海安縣城 12世孫 李象保之康士喆斗妹夫也
 李象保—花春—義禮—公日 公林 日結

節婦高氏墓碑 (原文)

業武康士結妻高氏表節碑

氏姓羅業武高應秋之女。生于道光乙未歲
歲癸丑，嫁于康士結，甘與食貧。同年十一月十三日，其夫刈竹於運政島，半澤零沒，
屍屍不見。氏迎海呼哭，渾沫，曠日絕樹，
~~後三日而夫之屍~~ 同月十五日庚夜，於經沿海樹
後三日而夫之屍果於下至，誠已驚天。死即同穴，
以若村恒，能盡殉節，誠一代之所無亞。千古而
罕有，誓有題墓，已多嘉尚。紳道完文，先用激勵。
然旌門之狀請，事係閭閻，既无子女，於鄉親戚，
章能咸拜，教將泯滅于。歎與余常慨，然以此勒石，
敢題黃額之辭，用表公冥之節。

同治九年仲夏知州 慎哉結 識

看役有司 金鷹河 書

慎武祐の經歷

居島慎武 庚子10月15日生

癸卯4月2日 亡

澤村判官 魚川樂語 大縣藏室

司憲府待年 通訓大夫 歷任

1983年度 墨主創刊号の記載に
対し 寫筆社誌

寫筆人 高聖淑

遼敬島 地名由來

高麗時禮宗 皇帝 때 中國의 梁나라 禮宗 사람
인 胡宗보의 辛卯年(AD 1111年)에 倭化하여
壓勝新로 皇帝의 寵愛를 받아 벼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中國의 臣子였었던 것이다 天氣를 보아
濟州島에 장수가 많이 태어나서 中國을 버릴 만
것 같으므로 濟州島로 건너와서 倭國을 물명하
장수혈을 찾으며 地脈을 떠나서 外해치고 壓地는
버슬라서 中國을 향하여 西쪽으로 도망가는 中
이었다 이때 廣壤堂의 高乙卯神이 노여움을 떠
고 神鷹을 불러서 그의 머가 뜯아가는 것을 막아
잡아주는 神鷹을 붙였다 命을 받든 神鷹은 強風
을 일으켜 元帝(龍神) 앞바다에 있는 嵒石 사이
에서 벼를 취부수어 胡宗보이 물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여 遼敬島라 부르게 되었다 조종여사는 高乙
卯神의 靈異스러운 일을 묘사하여 廣壤王으로
封하고 食邑을 下賜하여 해마다 광양당에

에서 祭祀를 지내왔다 李朝에 이르러서는
本島에서 治祭에 허오단中 高宗二十四年(1886)
에 柳漢明教師에 三柱廟를 건축 하여
堂에 모셨던 三乙即神의 位牌을 廟로 옮겨
모시기 됨에 當時는 自然的으로 民間信仰所
인 港祀로 전해오다가 改稱 되었다
(參考文獻 濟州島의 傳來民譚)

1983年 高氏年報 星主創刊호에
記載된것을 寫記 하였다

寫筆人 高聖淑